Marche slave, Op. 31

- □□

정보

개요
곡명:《슬라브 행진곡》 (Slavonic March / Marche slave), Op. 31, TH 45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작곡 시기: 1876년 9월 말 –10월 초, 모스크바
초연: 1876년 11월 5/17일 (구력 /신력),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 첫 교향악 연주회.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지휘했다.
장르: 단악장 관현악 행진곡
소요 시간: 약 10–12분

Tchaikovsky Research 작품 해설 · IMSLP 악보 ·판본 정보 · Britannica 작품 항목

차이콥스키가 자필에 적은 표제는 ‘슬라브 민요 주제에 의한 세르보 -러시아 행진곡 ’에 가깝다. 세르비아 - 오스만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의 자선 ·범슬라브 연대 분위기에서 출발한 이 곡은, B♭단조의 장송 행진곡풍 시작과 세르비아 민요를 거쳐 B♭장조의 빠른 종결로 나아간다. 알렉세이 르보프의 러시아 제국 국가 God Save the Tsar가 중간과 코다에 인용되면서 , 애도와 군사적 동원, 제국의 공적 상징이 한 악장 안에서 충돌한다.

위촉과 짧은 작곡 기간

러시아 음악협회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세르비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전쟁 피해자를 돕는 자선 연주회를 위해 새 행진곡을 요청했다. 차이콥스키는 1878년 나데즈다 폰 메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악협회 이사회가
적십자 자선 콘서트를 위해 세르보 -러시아 행진곡을 주문했다고 회고했다. 초연 행사의 명칭은 자료에 따라 적십자 또는 슬라브 자선협회로 달리 전해지므로 , 특정 모금 기구를 하나의 공식 명칭으로 고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작곡과 관현악화는 187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 완성 총보에는 9월 25일 /10월 7일 날짜가 적혀 있다. 날짜 차이에서 ‘닷새 만에 작곡했다 ’는 후대 요약이 생겼지만, 실제 작업 순서까지 보여 주는 작곡 일지로 확대할 수는 없다. 핵심은 자선 연주회를 앞두고 매우 짧은 기간에 초고와 관현악화가 함께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초연과 출판

전문 연혁이 확인하는 초연은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의 첫 교향악 연주회에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지휘한 공연이다. 정확한 건물명은 자료마다 볼쇼이 극장, 모스크바 음악원 등으로 엇갈리므로 여기서는
기관과 도시까지만 적는다. 차이콥스키는 초연 직후 여동생에게 작품이 ‘애국적 열광의 폭풍 ’을 일으켰다고

썼고, Tchaikovsky Research는 청중의 요구로 반복 연주되었다고 정리한다. 이 표현은 작곡가가 느낀 당시의 반응을 보여 주는 기록이지, 음악적 우열을 판정하는 문장은 아니다.

표트르 유르겐손은 1876년 10월 피아노 독주 편곡을 먼저 냈고, 피아노 네 손 편곡은 1879년, 총보는 1880년 , 관현악 파트는 1887년에 뒤따랐다. 따라서 ‘초연과 동시에 완전한 관현악판이 출판되었다 ’고 쓰기보다, 피아노판에서 총보 ·파트로 출판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편성과 기본 설계

편성은 피콜로 2, 플루트 2, 오보에 2, B♭ 클라리넷 2, 바순 2, F 호른 4, B♭ 코넷 2, B♭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3, 군대북, 심벌즈, 큰북, 탐탐, 현악 5부다. 코넷과 트럼펫을 ‘금관 4대 ’로 합치지 않아야 19세기 악보가 의도한 음색 층을 보존할 수 있다. 군대북과 다른 타악기는 행진의 공적 표정을 강화하지만 , 그
사실만으로 곡을 선전 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Tchaikovsky Research가 제시하는 직접 구조는 240마디의 한 악장, Moderato in modo di Marcia funebre (B♭단조)에서 Più mosso. Allegro(B♭장조)로의 이동이다. 느린 장송 행진곡풍 도입을 ‘처음부터 빠른 행진 ’ 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첫 청취의 열쇠다.

민요 세 곡의 배치

자필 피아노 편곡에 표시된 세르비아 민요는 특정 마디에서 곡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Sunce jarko, ne sijaš jednako는 5마디부터 나타난다. 번역하면 ‘밝은 태양도 어디서나 똑같이
빛나지는 않는다 ’는 뜻에 가깝다.
Prag je ovo milog Srba는 86마디에서 시작한다. 제목 번역은 ‘사랑하는 세르비아의 경계 ’ 또는 ‘
문턱 ’처럼 다르게 옮겨진다.
Jer puščani prah ne zadaje njemu strah는 104마디에서 식별되며, Rado ide Srbin u vojnike의
한 절과 연결된다. ‘세르비아인은 기꺼이 전쟁터로 간다 ’라는 번역은 가사의 의미를 옮긴 것이다.

코르넬리예 스탄코비치의 빈 출판 선집이 세르비아 민요의 러시아 전파에 중요한 매개였다는 학술적 맥락은
이 인용들이 당시 청중에게 낯설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만 차이콥스키가 어느 선집의 어느 쪽을 직접 필사했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않는다.

국가 인용과 청취의 방향

알렉세이 르보프의 God Save the Tsar는 123–134마디와 205–219마디에 인용된다. 첫 등장은 아직
세르비아 선율과 장송풍의 긴장이 남아 있는 가운데 공적 표지를 내보내고, 코다의 재등장은 B♭장조의 빠른 흐름 속에서 그 표지를 크게 확대한다. Tokyo Philharmonic과 Hollywood Bowl의 프로그램 노트는 이를 세르비아의 고난에서 러시아의 원조와 승리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읽지만, ‘고난 →구원 →승리 ’라는 네 단계가 차이콥스키가 남긴 공식 대본은 아니다.

오늘날 이 국가 인용은 19세기 러시아 제국과 범슬라브 정치의 맥락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동시에 세르비아 민요의 선율과 군악적 음색이 만들어 내는 음악적 운동도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적 상징을 설명하되, 후대의 정치적 평가를 차이콥스키의 자필 프로그램처럼 대신 말하지 않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이다.

소비에트 판본의 주의점

1961년 전집 총보와 1965년 피아노판 일부는 God Save the Tsar를 다른 음악으로 대체하고 원래 인용을 각주나 부록에 남겼다. 이는 소비에트 편집 정책에 따른 판본 차이지, 1876년 작곡가가 원곡을 고쳤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 인용이 들리지 않는 연주를 만났다면 먼저 사용한 총보나 편곡판을 확인해야 한다.

연주와 녹음

차이콥스키가 편지에서 말한 ‘애국적 열광 ’과 오늘날의 연주는 서로 다른 청취 조건을 가진다. 낮은 현과
목관의 장송풍을 충분히 가라앉혀야 세르비아 민요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뒤의 Più mosso에서는 코넷 ·트럼펫 ·트롬본과 타악기의 겹침이 군중적 추진력으로 이어진다. Portobello Orchestra와 Tokyo Philharmonic의 프로그램 해설은 이런 대비를 애도에서 결집과 승리로 읽는 해석 사례를 제공한다.

녹음 카탈로그에는 레너드 번스타인 ·뉴욕 필하모닉의 1963년 컬럼비아 녹음과 여러 8분대 후반 –10분대 후반 연주가 보인다. 시간과 템포가 다르므로 특정 음반을 정답으로 서열화하기보다 , 장송풍 도입의 무게와 국가 재현의 공적 성격이 연주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다. 같은 이유로 초연 때 건물명이 불명확하다는 사실과, 후대 음반의 해석 선택을 서로 섞지 않는다.

주요 자료

Tchaikovsky Research, Slavonic March
Tchaikovsky Research, Letter 862
Tchaikovsky Research, Letter 513
IMSLP, Slavonic March, Op. 31
Tokyo Philharmonic 프로그램 노트
Hollywood Bowl/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정보 Marija Koren, 세르비아 주제와 러시아 음악 연구 Portobello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Burgess Hill Symphony Orchestra 분석 노트 Encyclopaedia Britannica, Marche Slave